



독일연수기

자가용 뱅크(?)로 시가지를 질주하고...



崔 日 文

〈대한송유관공사 영남지사 부지사장〉

서울 올림픽이 있기 전 해인 1987년 9월 서독의 한 탄광도시에 서 인구 30만의 도시인 「칼스루헤」라는 곳으로 이사를

했다. 이사하기 보다는 혼자서 가 방 몇 개만 옮기면 되었으니까 이동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초기 어학 연수를 마치고 본격적인 기술연수를 받기 위해서였다.

서독 정부가 알선해 준 곳은 1980년 초 까지 한화에너지 주주였던 「모빌」 정유공장이었다. 그 곳은 인근에 조그만 마을이 있는 중부 라인강면에 위치하고 있었다.

「모빌」에서 「칼스루헤」는 약 30km로 퇴근 후 혼자서 남는 시간을 보내기에는 적당하였다.

시내 한 복판에는 옛 궁전이 있고 그 주위에 연못과 잘 정돈된 정원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놀이터로 휴식처로 애용되었다.

지방자치체가 철저히 시행되고 각 도시에 명문대학이 대부분 있었는데 「칼스루헤」의 전통있는 대학도 연구소와 기업들간에 협조를 잘 이루고 있는 것 같았다.

대중교통 수단으로는 전동차가 주었고 시내버스가 보조를 했다. 나도 국민학교시절 동대문·종로를 다니던 전동차를 생각하며 가끔 이용하였다.

「칼스루헤」에 처음 살던 곳은 전동차 역 종점에 다가가서 있었고 그 종점에는 일반주택과 아파트가 잘 어울려있는 조용한 동네였다.

그 동네 남쪽으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숲이 이어져 있다. 그들이 자랑하는 「슈바르츠 발트」라는 삼림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20~30m 또는 그 이상되는 아름들이 나무들이 하늘로 치솟은 울창한 숲으로 땅에는 햇빛조차 닿기 어려워 삼림 전체가 어둡다해서 「검은 삼림」이란 뜻으로 그렇게 부른다. 산아래부터 꼭대기까지 골고루 임도(林道)를 내놓아서 차량이 들어가 나뭇가지를 치고 대목을 나르고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했다. 나는 가끔 이 임도를 따라 조깅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했는데 한 여름인데도 햇빛이 들지 않아 한기를 느끼기도 있다. 꾸준한 삼림정책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산을 풍요롭게 가꾸어 국민을 건강하게 하고 큰 자산이 되도록 한 것이다.

다시 내가 살던 집으로 이야기를 돌리면, 나에게 추천해 준 곳은 아파트였는데 각 단지는 30m씩 뚝뚝 떨어져있고 각 단지 가운데는 크게 장성한 나무들이 쪽 늘어서 있어서 쾌적한 환경이었다. 나는 독일 가족과 같이 살게 되었으며 그 집에는 전기회사에 다니는 주인내외와 두 딸이 있었다. 큰딸은 알가닥에 떠들기 좋아하였으며 시내 백화점에서 일했다. 반면에 작은딸은 조용하였고 음악과 그림을 좋아하는 건축과 전공 대학생이었다. 집에서 있는 시간을 가족과 같이 재미있게 지내도록 하려는 배려에서 이 집을 정해 준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석달을 못 버티고 방을 옮겼다.

두 딸을 찾는 친구가 많아서 집안 분위기가 시끄럽고 어수선했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을 이야기했더니 마침, 「모빌」에 다니는 「군 브룟」이라고하는 독일 직원이 자기집의 3층을 빌려주었다. 정원이 있는 전통 주택으로 부근에는 새들과 오리가 많은 호수와 과수원이 있어 아늑한 환경이 맘에 들었다.

「군 브룟」은 공고를 졸업하여 자동차 마이스터(기술장) 자격을 가

지고 있었다. 그는 「모빌」에 8시에 출근하고 오후 5시에 퇴근해서는 잔디깎기, 페인트칠하기 등 집안을 수리하거나 굵은 일을 찾아서 했다. 그의 부인은 부지런히 살림을 하고서 남편에게 하루 일한 것을 보고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이 부부는 스페인어를 제법하였는데 「칼스루헤」에 소재하고 있는 독일-스페인 가정들을 동아리 모임으로 만들어서 이 모임의 행사를 계획·시행하는 총무일을 열성적으로 하였다. 나도 그 모임에 참석하여 스페인 연극,음악 등을 감상하곤 했다. 하예튼 「군 브룟」과 함께 라인강을 건너서 「모빌」에 출퇴근 하였다.

「모빌」 정유공장은 앞쪽으로는 밀밭이, 뒤쪽으로 라인강이 연해 있었다. 정유공장안에서는 유지보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되어있다. 안전관리 때문이다.

내가 관심이 있던 분야는 당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지 않았던 무연 휘발유에 대한 것이었다. 이들의 주요한 옥탄가 향상제로서는 MTBE를 사용하였다. 원유는 환경을 고려 경질원유이며 저유황인 것이 도입되었고 방향족중 벤젠등은 함량을 규제하고 있었다.

TAL(Trans Alpin Line)이라는 송유관을 통하여 원유를 공급받았으며 이 송유관은 이태리해안에서 알프스를 경유, 독일의 남북을 관

통하고 있었다. 수송부문 중 특이한 것은 생산된 석유제품의 상당량을 라인강에 의한 선박수송을 하는 것이었다. 휘발유·경유에 대한 주유소 판매가격은 매일 변동되었고 주유소마다 조금씩 달랐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편의점·음식점 등이 같이 설치된 주유소를 상당히 선호하는 것 같았다.

1987년말경, 머리로 식힐겸해서 그 곳에서 알게 된 한 분과 북쪽 바다에 연한 휴양지를 경유, 덴마크서베를린을 가기로 했다. 배기통에서 약간 소리가 나고 브레이크가 좀 시원치 않았지만 자동차 상식이 별로없던 나로서는 그냥 쓰던 차를 몰고갔다. 자국의 벤츠, BMW 등 우수한 차종 생산을 감안하여 속도 제한이 없으며 통행료를 받지 않았던 고속도로(아우토반)를 우리는 140~150km/hr의 속력으로 달려 나갔다.

오후 늦게 북해와 이어진 연안의 한 항구(Heiligen haber)에 닿았다. 수도 셀 수 없는 청둥오리, 물오리, 물새들이 군락을 이루며 주변 경관과 갈대, 특히 바다 석양과 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항구였다. 이를 후 배를 타고 덴마크 코펜하겐에 갔다. 연안 바다에는 많은 화물선, 여객선들이 정박하였고 시내에는 성탄절을 넘긴지 얼마되지 않은 연말 분위기와 도로위로 수놓은 성탄장식등으로 모두가 들떠 있었다. 해안 한편에 안데르센 동화의

인어공주상이 차가운 물결과 바람을 맞으며 가날피 먼 곳을 바라보고 있다가 훌쩍 바다로 뛰어들것만 같았다.

우리는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날을 서베를린에서 보내기 위해 「함부르크」를 거쳐 「하노바」로 들어서서 베를린 가는길로 향했다.

서베를린이 서독의 어느 곳에 있을 것이라고 어렵듯이 생각하고 있었던 나는 서베를린이 동독의 한가운데에 섬처럼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그 때 알고 새삼 놀랐다.

서독에서 건설하여 동독에 무상으로 주었다는 동독내 베를린행 고속도로가 서독의 남부, 중부, 북부에서 베를린을 향해 뻗어있었다.

하노바에서 얼마가지 않아 동·서독 국경에 닿았으며 입구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동독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지켰다. 통행자에게 여권을 받아서 검문소에 들어가 신원조회를 하는데 간혹 체크되는 통행자는 차량을 한쪽으로 몰아서 대기시켰다. 우리가 검문을 받고 통과하는데 죽히 한시간 이상 걸렸다. 연말이라 특히 검문이 심했는지 알 수는 없었다.

공산주의에 대해 완벽한 반공교육을 받은 우리로서는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기다렸으며 혹시 북한으로 납치되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었다.

동독 고속도로는 속도제한으로 80km/hr이상 속도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차량이 길게 밀려 느리게 갔다. 간혹 나타나는 주유소와 편의점에는 별로 이용하는 차량이 없었다. 서베를린에서 쓰는 수도, 전기는 동독에서 공급하여 요금을 지불한다고 했다.

차가 베를린에 20km 남았다는 표지가 나타나게 되었을 때 그 동안 느끼지 못했던 배기통에서 소리가 한결 커지는 것으로 들었다. 점점 커져가던 배기소리가 베를린 시내에 들어서서 얼마되지 않아 「퍽」하며 뒤에 무엇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며 질질 끌리고 있었다. 그리고 배기소리는 탱크가 굴러가는 소리처럼 진동하였다. 양 옆으로 달리는 차량때문에 서지도 못하고 그냥 시내 한 복판을 질러갔다. 바깥은 밤 8시가 넘어 가로등과 크리스마스 장식등이 초롱초롱 겨울밤을 밝힌다.

내려서 카센터나 수리점을 찾기도 막막할 것 같았다. 무작정 지도를 보며 친구집을 찾기로하고 그냥 내달렸다. 쫘무니에서 하얀 연기를 퍽퍽 뿜으며, 덜컹덜컹덜컹 끝리는 소리, 크르릉크르릉 진동하는 소리로 차안에서도 정신없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밖에서야 그 소리가 얼마나 요란할꼬

연말행사로 들떠 인도에 지나가던 많은 인파의 시선이 모아지고 옆을 스치는 자동차에서도 시선이 따라왔다. 천신만고 끝에 친구집을 찾으니 구세주를 만난 기분이었다.

장거리 운전엔 검문소 통과, 머물러 소동으로 저녁을 먹는등 마는등 피곤에 골아 떨어졌다.

다음날은 카 수리업소를 찾으니 연말 휴가로 아무데도 문을 연 곳이 없어 떨어져내린 배기머플러통을 철사와 노끈, 깡통을 엮어 찬 바닥에 누워 오들오들 떨면서 차체에 잡아맸다. 그런데 그 상태로 큰 소음없이 「칼스루헤」까지 근1000km를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

좌우지간 그날 밤은 새해를 맞는

날로 「Silberstag」이라고 이들이 특별히 아끼는 그믐날이란다. 베를린 시내 거리를 다니다가 중앙광장에 나가보니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밤 12시가 되자 교회·성당에서 타종을 하기 시작하니 여러가지 종소리가 화음이 되어 울려 퍼져나갔다. 이는 축제의 전주곡이었다.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뛰며 이쪽에는 샴페인을, 저쪽에는 화약불꽃을 터뜨리고 쏘며 한해를 맞는 기쁨을 축하하였다. 온 시내

에서 골목에서 서로 손잡고, 아무나 껴안고 노래를 부르며, 축제 분위기는 밤새 식을 줄 모랐다. 한해를 보내는 쓸쓸함을 잊고 새해를 맞는 희망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모습으로 느껴졌다.

베를린에 오면서 고생한 일들이 있어서 이날 밤의 기쁨은 나에게 더욱 컸다. 8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때의 추억과 아름다운 전경을 그리며 가끔 혼자 미소를 짓는다. ☺

